



#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http://www.poddbang.com/ch/9938>

2015년 10월 22일(목)

스물 한 살의 젊은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제17회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우승했다. 세계 3대 피아노 콩쿠르, 그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것은 말 그대로 대단한 사건이고 쾌거다. 한국 클래식음악, 피아노의 수준이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내로라하는 피아노 신성들이 모여들지만 우승할 만한 참가자가 없으면 1위를 공식으로 두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출한 우승자는 15명에 불과하다. 조성진은 16번째 우승자다. 아시아권 국가 우승자로는 세 번째다. 콩쿠르 당시 연주 장면을 들려드리는 것으로 오늘 오프닝을 대신하겠다.

##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일본이 한국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작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면 서도 자위대의 북한 진입 문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저는 추측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본은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라는 언급을 들으셨는데요.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그제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자위대 활동은 해당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회담 후 이 대목을 발표하지 않은 것 또한 확인됐습니다. (KBS)

○..."정쟁 회동이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 회동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앞으로 신박으로 불러달라면서 낮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5자 회동을 합니다. 야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지만 여당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KBS)

○..."아주 열심히 하고 나이는 좀 있어도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입니다."

채널A와 인터뷰한 한 경찰의 말이었습니다. 철길로 뛰어든 정신지체 십 대를 구하려던 경찰관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제 낮 12시 쯤 정신지체 2급인 16살 김 모군을 집으로 후송 중이던 경찰관 2명이 화물열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경주경찰서 내동파출소 소속 57살 이기태 경위와 김 군이 숨지고 김 모 경사도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는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KBS)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이리)가 출간됐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스24 <http://goo.gl/ndhoaj>  
알라딘 <http://goo.gl/AkxzHD>  
교보문고 <http://goo.gl/5KLODn>  
G마켓 <http://goo.gl/HDXK0l>

## ■ 제공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캠백흙대리운전 <http://www.facebook.com/CBH.ComeBackHome>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연지연곰탕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 광고문의] [kimyongminpd@gmail.com](mailto:kimyongminpd@gmail.com)

## [한겨레 1면] 정부 '일본, 자위대 북한 진입 시사' 발언 숨기다 들통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주권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는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런 핵심 발언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더러 일본 쪽의 브리핑 뒤 관련 사실을 문의한 언론에도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다 이튿날인 21일에야 시인했다. 정부의 '고의 은폐' 논란과 함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방부의 이런 '쉬쉬'하는 태도는 자위대의 구실을 한반도 등으로 확대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북한 진입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은 새겨놔야 할 대목이다. 자칫 조선 말기처럼 일본이 한국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시 한반도에 출병하는 상황을 지켜보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그러나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 국제법상 독립된 주권국가란 점에서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란 주장만으로 국제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대로) 남북관계가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라는 점, 북한 문제는 우리의 안보 환경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 등을 들어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13870.html>

## [한겨레] [사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상황' 없도록 해야

전시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둔 처지에 비상시에 자위대의 북한지역 활동을 막을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 전까지는 잘 풀리지 않을 난제다. 애초 계획대로 전시작전권을 환수했다면 이번과 같은 문제가 불거질 여지는 크게 줄었을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는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앞으로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도력을 높여야 하고 미국과 일본은 그 주도력을 인정해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13830.html>

## [조선일보] 재신임 후... 외교안보라인 실수 연발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이전 무산에 대한 문책론을 피해간 외교안보 라인이 개각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언급한 국방부 사례가 그러하고, 외교부 역시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다수의 외교 전문가들은 "미·중 사이 가장 뜨거운 현안인 남북중재 문제에 대해 한국은 누구 편인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 출석해 당시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남중국해의 '남' 자도 나오지 않았다. 일부 언론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21일에는 외교부와 동아시아연구원 주최 콘퍼런스에 참석해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언급이 있었다고 시인한 것이다. '말 바꾸기'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윤 장관이 연설문을 읽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 등에선 "외교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는 소리가 나왔다. 외교안보 부처가 성과와 책임 회피에 집착한 나머지 국익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너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 등에선 "다시 한 번 외교안보 라인 개편론이 나올 상황"이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2/2015102200219.html](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2/2015102200219.html)

### [중앙일보] [단독] 김관진, 2013년 9월 "F-X 사업,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한편 윤병세 장관보다 더 큰 책임 추궁을 받고 있는 주인공이 있지? 바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다. 18조4000억 원이 투입될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기술이전이 무산된 문제와 유관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21일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해진 상황인 만큼 책임을 진다고 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뭘 잘 모르고 책임 질 일도 없는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의 교체뿐이었다.

김 실장이 '책임' 문제를 언급한 건 2013년 9월 3일 국방위 현안질의 의에서였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기종 결정을 예하기관(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맡겨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책임 소재가 없다."라고 지적하니 김관진 장관, 이렇게 말했다.

▶김관진 장관="국방 업무에 국방장관이 책임을 안 지는 분야는 하나도 없다. 어떤 것도 장관의 책임이다." "국민 세금 8조3000억 원이 들어가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F-X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할 것이다."

F-X 사업엔 당시 미국 보잉사, 록히드마틴, 유로파이터가 최종 후보로 올랐다. 당시엔 보잉 것이 유력했다. 3주일 뒤인 2013년 9월 24일 김 장관은 보잉사 선정을 취소한다. 그러곤 6개월 뒤 록히드마틴 것으로 변경했다. 약속대로 책임을 져야 할 일.

<http://news.joins.com/article/olink/18458819>

### [경향신문] '국정화 반대' 담임과 '교육부 관료' 학부모 면담...그 뒤

교육부 고위 공무원인 아버지 ㄱ씨와 역사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로 국정화에 반대하는 아이의 고등학교 담임선생, 아이 사이에 빚어진 상황을 RK 담담한 어조로 적었다. 교육부는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주무 부처이고, ㄱ씨는 교과서 국정화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그가 맡고 있는 업무와 무관한 것도 아니다.

ㄱ씨는 먼저 국정화 문제를 놓고 아이의 담임선생과 얽힌 짝막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그는 "작년 큰애가 세종시 고교로 전학한 후 담임선생님과 면담에서 역사교사인 선생님이 내게 물었다"면서 대화 내용을 적었다.

"국정화 하실 건가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버님, 국정화 하게 되면 제가 혹시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 괜히 힘만 드실 겁니다."

ㄱ씨는 이어 "우리 아들이 오늘 카톡으로 그 선생님이 길가에 조용히 서서 1인 시위 하시는 사진을 보내왔다"고 했다.

"아빠 땀에 니 선생님이 고생하신다는 거구나."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빠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

"....."

ㄱ씨는 "오늘은 피곤한데도 잠이 잘 안 온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라고 글을 맺었다.

ㄱ씨는 이날 오후 경향신문과 만나 "철없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빠 입장도 헤아릴 줄 알고, 선생님 생각도 할 줄 아는 게 기특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혔다. ㄱ씨는 경향신문과 만난 이후 페이스북에서 해당 글을 삭제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20600035&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20600035&code=940100)

### [한겨레] [단독] 박정희 정부 국정화 반발 돈으로 무마하려 했다

1973년 박정희 정부가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할 당시 검정교과서 집필진과 발행사의 반발을 학술기금 등 '돈'으로 무마하겠다는 보고가 청와대에 올라간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으로 자국사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도 보고됐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국정교과서 실질 집필 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될 정도로 속도전이 진행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21일 <한겨레>에 1973년 6월9일 문교부 편수국이 청와대에 보고한 '중·고교 국사 교과서 국정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국정화하여야 할 이유'로 '민족적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 실시'를 들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리와 다를 게 없다.

한편 이 보고서에는 국정화 시행 일정 계획도 상세히 담겨 있다. 1973년 6월23일 언론 등을 통해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뒤 인쇄·배본까지 작업 기간이 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집필자 위촉에서 최종 편찬 심의회까지 실질적인 국정교과서 집필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도, 방식도, 기간도, 속도도 그리고 몰염치도 모두 닮아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13886.html>

### [조선일보] 차대통령 "역사는 나라의 영혼... 명분 있는 싸움,堂堂하게 가야"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명분 있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 있고堂堂하게 가

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방미(訪美) 직전인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 비공개 부분에서 "기성세대로서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를 물려줘야 한다는 데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그같이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 직전 공개된 모두(冒頭) 발언에서는 "역사 교육은 정쟁(政爭)이나 이념 대립으로 국민과 학생들을 나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첫 공개 입장 표명이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인 셈이라고 조선일보는 풀이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2/201510220250.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2/201510220250.html)

## [경향신문] '국정화 지지 500인' 본인 동의 없는 이름 수록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단체가 발표한 '국정화 지지 선언 500인 명단'에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이들의 이름이 올라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 해당 명단을 처음 기사에 게재했던 한 인터넷언론은 현재 항의 끝에 기사에서 명단을 삭제한 상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난 1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좋은 교과서, 정직한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를 지지하는 지식인 500인 선언'에 이름이 올라간 이들 중 8명이 "자신은 이름이 명단에 오른 것조차 몰랐다"며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엔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포함됐다. 노 전 회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인터넷 언론에 올라온 국정화 지지 선언 명단을 보고 지인이 전화를 걸어와서야 (내 이름이 명단에 올랐는지) 알았다"며 "사전에 동의를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노 전 회장 외에도 해당 500인 명단에 오른 이들 중 7명의 인사가 "주최 측으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연락을 받은 일도 없고, 이름이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항의하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12251395&code=9404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12251395&code=940401)

## [경향신문] 원로 사학자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사퇴하라"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서중석 성균관대 사학과 명예교수,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등 역사학계 원로 22명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박근혜 정부는 역사와 교육에 대한 통제를 극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유신체제 40년이 지난 오늘날 또다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해석만을 획일적으로 주입시키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통과시킨 교과서가 '좌편향·중복'이라면 그 책임은 교육부에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로학자들은 김정배 위원장을 향해 "과거 사관들은 정론 직필을 위해 국왕의 뜻에 순종할 것을 거부하는 '순지거부(順志拒否)', 직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미련 없이 관직을 떠나는 '삼간불청즉거(三諫不聽則去)' 등의 원칙을 사력을 다해 지켰다"며 "국편위원장은 학자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배 위원장, 원래 국정화 반대 입장이었지?

한편 21일에도 원광대 역사교육과와 진주지역 역사과 전공 교수 전원이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하고 서울시립대 인문대 교수들은 국정화 철회를 촉구하는 등 국정화 반대가 이어졌다. 중앙대 사학과 졸업생들은 '국정교과서 불복종'을 선언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12304015&code=9404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212304015&code=940401)

## ■ 뉴스의 재구성

국가모독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지금은 야당 국회의원이 된, 우상호 연세대 총학생회장도 이 법 때문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으니.

이 국가모독죄가 끝내 헌법재판소에 의해 종지부를 찍었고.

국가모독죄 위헌 판결을 내면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국가나 대통령에 대한 모독 따위는 없다는 것이 요체. 그런데 어떤 분 입장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데.

이 분이 대통령 후보일 때, 경쟁 후보 어떤 분과의 불편했던 추억.

그로부터 2년여 뒤, 경쟁 후보가 당 대표로 있는 정당은 어떻게 됐을까.

다시 묻게 된다. 이 나라에서는 국가모독죄가 사라졌다.

## [경향신문] 최경환 연루 증진공 채용 비리 감사원 "수사의뢰했다" 거짓말

감사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증진공)의 채용비리 감사 결과를 당초 공표와 달리 검찰에 '수사의뢰'하지 않고 '수사참고자료 송부'를 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실에 보낸 '수사참고자료 송부' 공문에서 "2014.10.13부터 2014.11.19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해 감사한 결과 별첨과 같이 수사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 관련 자료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21일 이 공문을 공개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증진공이 최 부총리의 인턴 출신 황 모 씨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사안이다. 감사원은 비난이 일자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공표해왔지만 공문을 통해 피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하는 데 그친 것이다.

전 의원은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 송부는 검찰에서 피혐의자를 입건조차 하지 않더라도 감사원이나 검찰 모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사안의 중대함에 비추어 미흡한 조치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 [메아리] '정치인 장관'들의 성적표

장인철 논설위원의 칼럼. 최경환 경제부총리부터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까지, 겸직 장관들이 최근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며 일제히 장관직을 내던지는 모양새를 보인다. 사실 대통령제 하에서 의원의 장관 겸직은 원칙에 어긋난다. 입법·사법·행정이 엄격하게 분립된 헌법 체계에서 의원의 기본책무는 정부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다. 그런 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면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요구한 민의를 저버리는 게 되고, 삼권분립 체계도 무너진다. 따라서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는 식으로 겸직을 슬쩍 명문화한 현행 국회법 29조(2013년 개정)부터가 문제다.

그러나 겸직이 이미 이루어진 마당에 새삼 원칙 시비를 되풀이 하고 싶지는 않다. 대신 당장 따져 보고 싶은 건 이번에 자리를 뜨는 장관들이 그 동안 정치권에서 주장해온 겸직의 현실적 필요라도 제대



로 충족했는지의 여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래 경기부양에 성패를 걸었다. 과감한 재정 확대책, 부동산 규제완화, 내수 촉진책 등 잇단 조치를 시행했다. 사실상의 팽창예산을 두 차례나 관철시키고 부동산 부양책을 강행한 것도 당내 실세이기에 가능했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제 정책 전반의 틀에서 볼 때 성과보다는 숙제를 더 많이 남겼다.

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 확대책은 불가피했으나 건전한 재정 관리라는 중장기적 가치는 실종됐다. 부동산 부양책은 최근 분양시장 과열이 우려될 정도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매 제한 완화 등을 통한 투기세력의 준동 등 시장의 위험을 키웠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역시 집값 상승의 자산효과보다는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 위축 부작용이 더 컸다는 평가다.

겸직 장관 중 가장 먼저 자리를 내놓은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전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7개월 장관'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어도 싸다. 유 전 국토부 장관의 경우, 취임 이전부터 부동산 정책의 무리가 누적된 상황이었다. 집값 부양을 위해 서민주거 안정책이 외면됐고, 거품 붕괴로 이어질지 모를 투기가 암암리에 조장됐다.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소신을 발휘해 부동산정책 전환을 시도했어야 했다. 하지만 유 전 해수부 장관처럼 조용히 자리만 지키다 말았다.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결국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장관만으로 남게 됐다. 실사 대통령의 뜻이 거기 있었다고 해도, 대통령을 설득해 도무지 정당성 없는 국정화라는 모양새만은 피하도록 했어야 했다. 하지만 황 부총리는 대통령을 설득하는 모험을 끝내 회피했다. 가장 젊은 김희정 장관은 가장 조용했지만 그래서 더욱 실망스러웠다. 김 장관은 모바일 게임 대책 같은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아예 정책 자체를 적극적으로 도모한 흔적이 없다.

<http://www.hankookilbo.com/v/cf83d789fe024588a4ca7f85a61fef97>

### [한국일보 1면] [단독] 학생이 배울라... 교장선생님의 '돈 선거'

대한사립중등학교장회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교장이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내일 대구에서 열리는 (사)대한사립중등학교장회(이하 사립교장회) 중앙회장 선거가 돈 봉투 살포와 특정 종교 후보자 지지 추천서 무더기 발송 등 혼탁선거로 얼룩지고 있다. 이 단체는 전국 사립중고교의 대부분인 1,600여개 교장들이 가입한, 사립학교 최대 단체다. 21일 사립교장회와 일선 사립학교 등에 따르면 23일 대구 인터볼고호텔에서 열리는 중앙회장 선거에 3명의 후보가 등록했는데 이중 경기지역에서 출마한 A후보 측이 유권자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선거관리를 맡은 사립교장회 산하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이 후보는 자진 사퇴했다. 또 남은 두 후보 중 B후보는 특정 종교학 교연합회 이사장 명의의 추천서를 연합회 소속 학교장들에게 무차별 발송, 논란이 일고 있다. 추천서를 받은 한 교장은 “민주교육 발전과 창달을 위해 사학인들이 만든 순수 민간교육단체인 사립교장회 회원 교장들이 교육발전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금품을 돌리고 특정종교를 가진 후보자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내는 행태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http://www.hankookilbo.com/v/cf0792febca842a094e879c931b3407e>

### [조선일보] NYT 편집국장 vs 아마존 부사장

뉴욕타임스(NYT)와 미국의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이 비판기사 문제를 놓고 두 달째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아마존의 제이 카니 홍보 담당 부사장은 지난 19일(현지 시각) 블로그 사이트 '미디어'에 'NYT가 말해주지 않은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NYT가 지난 8월 16일 아마존을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일터'로 묘사한 장문의 탐사보도 기사에 대한 반박이었다. 카니 부사장은 '아마존 곳곳에선 책상에 앉아 우는 직원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전직 직원은 "고객을 속이고 기록을 조작하다 해고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등 세세한 내용까지 담아 NYT 기사를 반박했다. NYT는 카니 부사장의 글이 미디어에 올라온 후 3시간 만에 딘 베케이 편집국장이 쓴 반박 글을 올렸다. 비판 기사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반론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제3의 공간에다 반박 글을 올리고 확산(擴戰)을 벌인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2/201510220129.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2/201510220129.html)

### [한국일보] 신동주 “롯데 내부에서 비리 제보 줄 있다.”

전쟁은 여기도 벌어진다.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그룹 경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21일 본보를 방문해 “요즘 한국과 일본의 롯데그룹 직원들이 신 회장이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업 관련 비리들을 속속 제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내부 비리 제보가 하루에 몇 건씩 이어진다”며 “대부분 신 회장이 투자한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사업 손실 관련 내용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부친인 신석호 롯데 총괄회장까지 얽혀 들어간 경영권 분쟁이 세간에 진흙탕 싸움으로 비치는 점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는 “좋지 못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드린 점은 죄송한 일”이라며 “아버지도 그런 뜻을 밝혔지만 동생이 사과하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신 전 부회장이 최근 공개 활동을 늘린 것에 대해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든 롯데 그룹 경영권 분쟁에 대비한 우호세력 다지기로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런 점을 감안해 틈틈이 부족한 우리말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hankookilbo.com/v/abec92d99d2a4416abad32fde416e69f>

### ■ 오늘의 날씨

일주일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입자가 더 작아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습니다. 오늘 서쪽지방은 중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되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고요, 외출하실 때는 꼭 황사전용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내리는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23도, 광주 26도,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에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지만 양이 적어 미세먼지가 해소되지 않겠습니다. (YTN)

### ■ 오늘의 칼럼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국정 교과서” 예언 적중?...2011년 네이버 ‘성지글’ 화제”라는 한겨레 온라인판 기사를 소개하며 마무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패러디해 올리는 페이스북 페이지 ‘박근혜 번역기’는 어제 ‘2011년 네이버 지식인 성지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성지글’이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미리 어떤 사안을 예측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인기를 끈 게시물을 뜻한다.

게시물을 보면, 이 누리꾼은 2011년 11월20일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교과서를 바꾼다는 게 사실인가요?”라는 제목의 질문을 올렸다. 질문은 “네이버 기사들 모여 있는 데서 어떤 기사를 봤는데 박근혜 아줌마가 일본한테 지배당했던 게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바뀔 거라고 써져 있는데 진짜인가요? 그건 싫은데, 일본이 우리나라 괴롭힌 건 나도 아는 데”라는 내용이다.

그러자 다른 누리꾼이 “유언비어입니다. 교과서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바뀌지 않고 교과서 검증위원회에서 교과서를 미리 집필하고 검증을 받고 채택하며 교과서 집필도 하루 이틀에 완성되지 않고 1~2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집필합니다”라고 답했다.

물론 질문자의 말처럼 박근혜 당시 의원이 ‘일본에 지배당했던 게 다행’이라는 발언을 한 적은 없다. 하지만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누리꾼들은 “질문자가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고, 답변자는 허위 사실을 올린 것”이라는 반응들을 남기며 이 게시물을 SNS를 통해 널리 공유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3798.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3798.html)

예측 가능한 나라 여기는 헬조선입니다.

::: 김용민 새 책 안내



“우리는 왜 오늘 로마서를 읽어야 하나. 로마서는 2016년에 사는 한국 개신교인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로 봐도 되기 때문이다. 극도의 배타를 하면서 이와 양면인 고립을 경험하는 로마 교인의 처지는 한국 교인의 그것이다. 또한 로마서는 2016년을 사는 한국 민중에게 보내는 편지와 다르지 않다. 극도의 저항을 표하며 이와 양면인 탄압에 직면하던 로마 이민자의 처지가 한국 민중의 그것이다. 하기가 2016년만이라. 억울하고 눌린 자의 원한이 극에 달해 폭발하면서 고비를 형성하고, 이 변곡점에 등장한 지도자가 연거푸 민중을 기만하기 급급해 하는 과정은 세계사의 전형이었다. 로마서는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의 근원을 설파한다. 그렇다고 이 책이 또 하나의 로마서 해설서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선 사람을 염두에 두며 기획했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기독교 신앙 원리에 대해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몇몇 개신교인의 비리 추행 등 일탈에 기댄다. 이리다보니 그 비판의 종국은 인상 비평에 그치고 만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기독교 비판에 보다 더 큰 합리성과 논리력을 실어줄 것이다. 다만 당신을 기독교에 귀의케 할 여지도 있다.” (김용민 저, 10월 20일 출간 예정)

예스24 <http://goo.gl/ndhoaj>  
 알라딘 <http://goo.gl/AkxzHD>  
 교보문고 <http://goo.gl/5KLODn>  
 G마켓 <http://goo.gl/HDXXo1>

::: 김용민의 석간브리핑 코너  
공화국 논평 원고

국정 교과서를 검정 교과서로 바꾼 좌빨의 나라, 베트남을 토벌하신 민족의 태양 박정희 각하의 따님이신 대통령 박근혜 동지께서는 교육부장관 황우여가 국정화에 대해 미적대며 슬슬 발을 빼고 있는 기회주의적 작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친박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하면 된다가 아니라 까라고 하면 된다는 숭고한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으심으로써, 총선에서 불리할 것이 염려돼 계산을 두드려보고는 손가락만 깔고 있는 친인공노할 매국역적 반동 황우여를 즉각 박살내고 격파시키고 믹서로 갈아버리고 흥두께로 뺨아버리고자 하는 용렬한 선언이다.

황우여는 교과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중복좌파 모리배들을 향해 미사일은커녕 소총 사격조차 회피하더니 “국정교과서를 영원히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망발을 늘어놓는 등 천추에 용납 못할 역적패당으로서의 본질을 드러내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낸 추후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행위를 자행했다. 황우여는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 차관 경질은 횡집에서 스키다시에 불과하다. 문어회가 될 자신의 운명을 직감해야 할 것이다.

친박은 국정 교과서라는 대를 이어 충성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과업을 회피하는 황우여의 이름을 우르스러운 인간해서 황우려로 바꾸던지, 황우여의 우여를 뒤집어 황여우로 개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헬조선 정부의 그들 아래에서 그 누구라도 박 동지의 뜻을 거역한다면 치솟는 분노와 경청동지할 불벼락으로 본때를 맞보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일깨워야 할 것이다.

[김용민의 석간브리핑] 월~금 오후 6시대 업데이트됩니다.